

2011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2011년 하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남 경 수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년은 전반기는 생산성 저하, 구제역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가격 상승,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 대부분의 요인이 산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우려했던 공급과잉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4월 중순까지 육계 산지 가격은 높게 유지되었다.

5월 들어 이러한 여건들에 변화가 생겼으며, 우려했던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면서 육계 산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현재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에 의한 산지가격약세는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 육계 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1. 2011년 하반기 육계 사육 마리수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전망

대한양계협회의 육계 수급예측 기초자료를 보면, 5월 육용 종계 사육 마리수는 669만 마리로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했고, 종란 생산계군(성계)은 434만 마리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5월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을 살펴보면, 23,916톤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고, 질병 및 날씨의 영향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나타나지 않아 종계 생산성 또한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6월 병아리 생산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7,048만 마리로 전망되고, 7월 병아리 생산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6,506

만 마리, 8월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4,849만 마리로 전망된다.

4월까지 높게 유지된 육계 산지가격의 영향으로 4월 병아리 입식 마리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7월 복시기를 겨냥한 병아리 입식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병아리 생산은 증가하겠으나 사육농가의 부족으로 생산된 병아리가 입식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나, 절대물량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 병아리 생산 및 입식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8월 병아리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무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아 육계 생산성도 전년대비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7월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월대비 8.2% 증가한 12,276만 마리로 전망되고, 8월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9,039만 마리, 9월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7,746만 마리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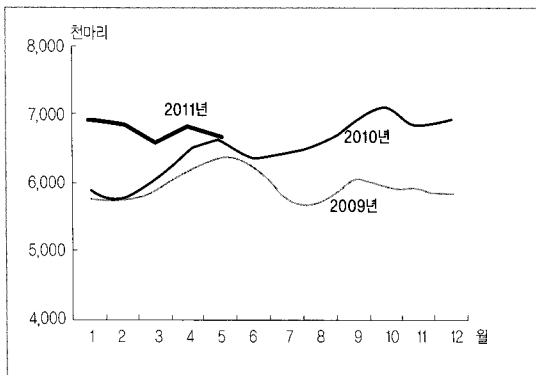
무더위에 의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지만, 전년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여 전년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종계 사육 마리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데, 각 계열업체간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잉경쟁이 종계 도태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아날까라는 의견도 있다.

2.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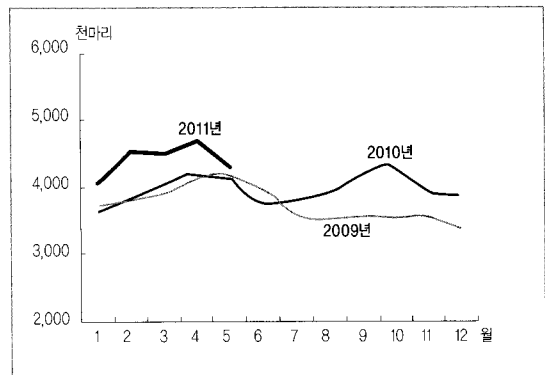
4월 중순 이후 공급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 현재 뿐만 아니라 2011년 하반기 공급물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5월 육용종계 입식 마리수는 전년



〈그림 1〉 육용종계 사육 마리수

※자료 : 대한양계협회



〈그림 2〉 육용종계 사육 마리수(성계)

※자료 : 대한양계협회



동월보다 34.6% 증가한 68만 마리로 나타나, 12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과 종계 및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정도,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9월까지 도계 마리수를 추정한 결과, 7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9,326만 마리, 8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6,767만 마리, 9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5,967만 마리로 전망된다.

닭고기 무관세 수입의 영향으로 5월, 6월 크게 증가했던 닭고기 수입량은 7월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시장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20% 관세가 적용되어 닭고기가 수입된다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7월 복 시기를 대비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복 경기 시세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 7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8,989톤으로 전망된다. 2011년 하반기 국내 생산과잉이 예상되어 향후 닭고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2일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물량을 살펴보면, 산지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했고, 전월보다 80.9% 증가했다.

종계 사육 마리수 증가는 병아리 생산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내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2011년 하반기는 물론 2012년까지 이어질

〈표 1〉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 구분 | 7 | 8 | 9 | 10 | 11 | 12 |
|-------------|-------|-------|-------|-------|-------|-------|
| 2011년(A) | 131.7 | 120.7 | 115.8 | 121.4 | 128.9 | 131.0 |
| 2010년(B) | 114.8 | 109.8 | 110.0 | 115.8 | 122.8 | 120.6 |
| 증감률(A/B, %) | 14.8 | 10.0 | 5.3 | 4.9 | 5.0 | 8.8 |

※주 :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했으며, 2010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가능성이 크게 존재해 육계 관련업체 종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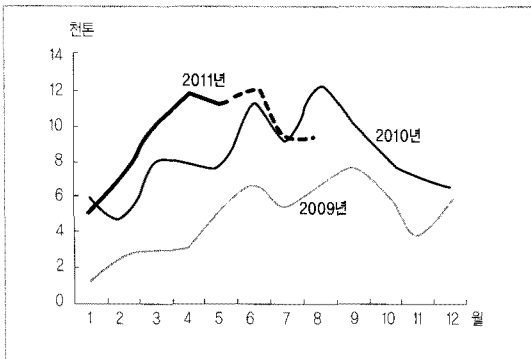
3. 하반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10% 낮은 수준 전망

생산성 하락, 종계 도태 마리수 증가, 구제역으로 인한 대체수요 발생,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대체수요 발생 등으로 2011

년 1월부터 4월까지 육계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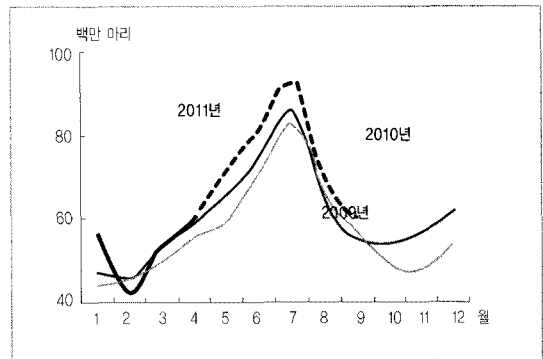
하지만 3월부터 병아리 입식 마리수가 크게 증가하여 4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하여 6월 현재까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1년 1~5월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2,084원/kg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3.0%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가격하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5월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1,543원/kg(농협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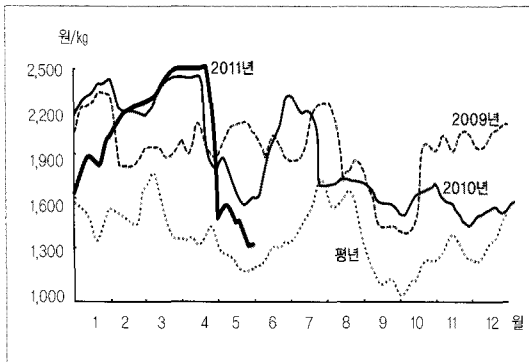
〈그림 3〉 닭고기 수입 추이 및 전망(검역 기준)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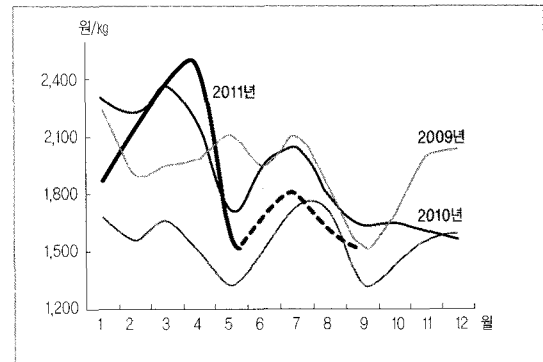
〈그림 4〉 도계 마리수 추이 및 전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5〉 육계 산지가격 추이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그림 6〉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공급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계 부문의 도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분기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소비증가가 사라진 지금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나보다 육계산업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지혜와 단결이 요구된다.

”

기준)으로 전년대비 9.4% 낮은 수준을 보였고 6월(1~21일)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1,394원/kg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24.4%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후 산지가격이 지금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7~9월 가격을 추정할 결과, 복 시기인 7월에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으나, 그나마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9월까지 공급량은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육계 산지가격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 시기인 7월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1,700~1,900원/kg으로 추정되고, 8월에는 1,500~1,700원/kg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9월에는 1,400~1,600원/kg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생산성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급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계 부문의 도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1분기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소비증가가 사라진 지금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나보다 육계산업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지혜와 단결이 요구된다. 